동아일보 - 1939. 07. 26/ 3면/ 4단

現代哲學의 志向
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[제8회]

金午星

實存哲學은 市民文化의 遺産인 理性, 즉『로고스』를 버리고, 파토스를 파고들고 잇다. 人間의 파토스의 側面을 發□하는 것은 現代에 잇어 가장 重要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. 더욱 파토스의 發□은 理性主義를 解體시키는데 큰 힘이 되엇던 것이다.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意味에서『로고스』즉 知性을 要求하고 잇다. 非理的인 現實에 對하야 知性을 擁護하며, 知性을 再建하는 것이 焦眉의 急務가 되어 잇다. 이제 우리는 單히 파토스 發□에 始從할 수 없고, 다시 새로운 知的 體系를 갖훈 世界觀을 再建해야 할 時期에 臨해 잇다. 勿論 이 새로운 世界觀은 前日의 理性主義의 그것과 같이 單히 知的, 理性的인 論理엇어는 안된다. 새로운 世界觀은 建設에 불타는 젊은 世代의 情熱과 意慾 또는 銳利한 想像力 등의 파토스를 한 개의 契機로서 갖지 안흐면 안된다. 그러나 새로운 世界觀의 契機가 될 파토스는 그것이 反知性的이어서는 안된다. 어디까지나 知性과 合致되며, 知性과 方向을 가치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. 나는 "情熱과 知性" 가운데서 反知性的인 파토스와 知性과 合致되는 파토스를 區分한 바 잇다. 그리고 다시 "哲學과 知性" 가운데서는 全體主義가 反知性的인 反對로 實存哲學은 그 全體가 非知性的임은 勿論이나 反知性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잇다. 허나 우리의 知性 再建은 實存哲學을 한 개의 善良한 파토스로서 攝取하면서 止揚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. (끝)